

## 천안·아산 발전 '손잡아'...천안아산행정협의회 출범

등록 2014.09.23 15:04:00 | 수정 2016.12.28 13:24:26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구본영 시장(사진 왼쪽)과 아산시 복기왕 시장이 23일 오후 천안시청사에서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 천안·아산중추도시생활권 사업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한 행정협의회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2014.09.23. 007news@newsis.com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이웃사촌이면서도 남처럼 지냈던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역화합과 상호교류 활성화 등 상생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23일 오후 천안시청사 이원중 지역발전위원장,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를 비롯해 구본영 천안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이번 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출범은 서로 다른 지역이면서도 생활권이 같은 전국 중추도시생활권 20개 권역 중 처음이다.

이날 양 자치단체장은 천안·아산중추도시생활권 사업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한 행정협의회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협력관계 유지를 약속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천안시와 아산시는 행정·교육·문화·도로·교통 등 각 분야별 협력에 관한 사항은 물론,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의 화합, 상호교류 등 양 시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 자치단체는 우선 협의회 창립 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천안·아산중추도시생활권'사업 내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행정구역 조정문제 ▲중추생활권 활력거점 공간 조성사업 등 실무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구본영 시장(사진 왼쪽)과 아산시 복기왕 시장이 23일 오후 천안시청사에서 천안·아산중추도시생활권 사업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한 행정협의회 협약서에 공동 서명 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2014.09.23. 007news@newsis.com

제일 가시적인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은 2016년을 목표로 232억원을 들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 1만3293㎡의 용지에 지하1층 지사4층 규모로 지역생활문화 도서관과 상생협력센터, 도시통합관제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밖에 KTX천안-아산역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과 천안추모공원 공동사용 등 현안 사업에도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 관계자는 "양 시가 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외형이 성장되어 온 만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분야별로 산적해 있어 점진적인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천안-아산생활권협의회는 천안과 아산 지역발전 정책의 현장 컨트롤타워이자, 창의적 발상의 '씹크탱크(Think Tank)'가 될 것"이라며 "KTX역사명칭, 택시영업권 등으로 갈등관계에서 이제는 하나의 생활권을 구성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007new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